

[중기 info] 바이어 발굴·자금 조달...수출 다리 놔드려요

기사입력 2017.09.27 04:07:02

■ 중진공 `글로벌뷰처스클럽



이동희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. [사진 제공 = 중소기업진흥공단]

로스팅컴퍼니로움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와 관련 부자재의 제조·유통을 위해 2016년 강원도 삼척에서 설립된 창업초기 기업이다. 창업 2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`강릉시 지역상품`으로 선정됐고 전국 거래처 100여 곳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.

로스팅컴퍼니로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`무기질 보충 더치커피 정형화`를 성공시키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. 문제는 이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것이다.

로스팅컴퍼니로움은 포화된 국내 커피시장을 벗어나 무궁무진한 성장의 토대가 될 해외 시장에 자체 브랜드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창업기업으로서

낮은 인지도,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재, 수출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진출 노하우 부재 등 전략적 부분뿐 아니라 수출 소요비용, 절차 등 실무적 부분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.

로스팅컴퍼니로움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5월 로스팅컴퍼니로움에 `글로벌퓨처스클럽` 가입을 권유했다.

수출을 희망하는 수출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, 노하우 공유 등 `글로벌퓨처스클럽`의 각종 교류 활동은 로스팅컴퍼니로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수출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씩 넘는 데 큰 도움이 됐다.

이동희 로스팅컴퍼니로움 대표의 꿈과 글로벌퓨처스클럽의 시너지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.

수출에 대한 지원과 지식이 전무했던 로스팅컴퍼니로움은 글로벌퓨처스클럽 가입 후 중진공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선정돼 중국 현지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, 수출계약 지원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. 그 결과 중국, 라오스 등에 커피·빙수 공급을 실시하여 수출의 물꼬를 텃고, 지난해 9만7204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작지만 수출 기업으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

또한 한·라오스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1대 1 상담회에서 라오스 건설사 SNK와 20만달러의 양해각서(MOU)를 맺은 후 지난 2월 라오스 비엔티안에 합자회사 `빙고 1호점`도 열었다. 어엿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로스팅컴퍼니로움은 최근 베트남에서도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.

이 대표는 "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막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는데 중진공에서 창업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 추천해준 글로벌퓨처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그 꿈을 차근차근 현실화해 나갈 수 있어 감사한 마음"이라며 "글로벌퓨처스클럽은 넓은 세계시장 진출을 꿈꾸는 많은 기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글로벌퓨처스 클럽은 정부의 수출저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,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수출기업화 촉진을 지원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결성됐으며 수출교육, 수출·FTA 컨설팅, 글로벌CEO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.

가입 회원사들은 중진공 31개 지역본부에 소속된 지역 글로벌퓨처스클럽에서 활동하며 수출 노하우는 물론 수출 선배 기업과의 만남과 네트워킹과 같은 귀중한 자산들을 얻을 수 있고 중진공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.

위봉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장은 "어려운 여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수출저변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 "글로벌퓨처스클럽은 수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"고 말했다.

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퓨처스클럽의 하반기 업체모집 및 신청 접수는 각 지역 본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.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,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.

※ 매경·중진공 공동기획

[특별취재팀 = 서찬동 차장(팀장) / 진영태 기자 / 이영욱 기자 / 안갑성 기자 / 최현재 기자 / 송민근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